

## <토론 녹취록>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10차 사파동행\_세종호텔노조 농성장편]

#### “노동자민중 투쟁승리를 위한 거리 민중토론마당”

#### - “운동의 쟁점, 그리고 세종호텔투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1부 주제별 발언 녹취록에 이어 2부 종합토론 녹취록을 실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일시 : 2026. 4. 2.(목) 오후 7:00 ~ 9:30

장소 : 서울 명동 세종호텔 농성장

- 토론 진행자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전체사회 :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 1부 주제별 토론

- 노동청년연대(노학연대)

- 비폭력주의

- 당사자주의

- 노동자투쟁에서 승리란?

#### 2부 종합토론

-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 여는 마당

### 사회-고진수 :

10차 사파 동행 진행합니다.

세종호텔 농성장편입니다. 사파기금은 최근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여러 주제로 많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만,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파와 노동자들이 함께 한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이전의 투쟁사업장 동지들도 그 과정에 다 계셨었죠. 찾아가는 사파연대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파동행’ 9회까지 했고 올해 이번이 10차 사파동행 세종호텔 농성장편이고요. 수도권 넘어 찾아가는 ‘사파 작은희망버스’도 11회 열었는데, 2022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하는 거제도 현장에 버스 여러 대를 함께 조직해서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권옥자 분회장동지도 와 계신데 청주요양병원분회 정말 힘차게 투쟁하실 때, 그리고 아사히, 소성리 뭐 할 것 없이 많은 투쟁하는 전국의 곳곳들, 춘천환경사업소, 동양시멘트 등 다양한 곳 다 다녀왔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파동행 10회차로 세종호텔 농성장편입니다.

동지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려 합니다.

(박수)

(구호)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투쟁!

오늘 사회를 보는 저는 세종호텔지부의 해고자이고 지부장을 맡고 있고,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고진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프닝 무대로 소수윗 동지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윗:**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신선한 기획을 가지고 또 모인 자리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민중토론 한마당 자리에 세종호텔 해고 복직 투쟁을 애정하고 또 함께하시는 동지들이 같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또 투쟁을 같이 만드는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또 어떻게 승리할지 고민하는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수윗 공연 - 첫번째곡 : 세종호텔 해고복직투쟁
- 소수윗 공연 - 두번째곡 : 걸리적거리는 권리
- 소수윗 공연 - 앵콜곡 : 유령

**사회-고진수**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사파동행은 찾아가는 집회방식으로 수도권중심으로 씨엔엠, 콜트콜텍, 동양시멘트, 하이텍알씨디, 광화문 공투 고공단식 농성장, 콜트콜텍, 톨게이트, 아시아나KO 등 투쟁하는 사업장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사파동행은 좀 특별하게 '세종호텔 투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이끌어가 주실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이시고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소장으로 요즘 많은 이슈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 1부 주제토론

**권영숙 대표:**

반갑습니다. 주변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거리에서 토론 마당을 열겠다고 할 때 우린 각오를 했었죠?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귀 쫑긋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내가 할 이야기들도 생각을 해서 토론 마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 앞쪽으로 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가 윽기고 A학급 공대위에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연행과 체포가 벌어졌습니다..그 덕분에 오늘 사파동행 분위기가 조금 산만하고 수가 적어졌지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모읍시다.” 이게 사파기금의 모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토는 뭐죠? 또 하나는 ‘돈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 이 두 가지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모토입니다. 해서 “희망을 모읍시다 찾아가는 현장 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그동안 작은희망버스와 사파동행 20회 정도 열어왔습니다.

이번 사파동행은 다르게 해보자였고 사실은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보자라는 게 애초의 기획이었어요. 거기서 근사하게 한번 토론마당을 열어보는 게 어떨겠느냐 했었죠. 로비가 침탈당하여 물러난 후 그래도 결행을 하자라는 생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작년말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의 기획 대주제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세종호텔 앞에서 “노동자 민중 투쟁 승리를 위한 민중토론마당”으로 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거리에서 대부분 집회를 하거나 문화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이번 거리토론마당은 사실은 해봐야 아는 거라서 모든 사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귀 쫑긋 그 다음에 나도 발언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세를 다듬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주제가 “운동의 쟁점 그리고 세종호텔 투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름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론자예요. 왜 이렇게 투쟁은 길고 장기 투쟁이 되어야 하는지, 왜 투쟁은 이기는데 이렇게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한지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자들도요.

장기투쟁 사업장이라고 말하는 그 장투 사업장은 사실은 어쩌면 되게 한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장기투쟁 사업장”, 제가 15년 전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할 때 썼던 말이에요. 700일, 800일, 10년, 5년, 더구나 개별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긴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요.

당연한 게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넣으면서 10년씩 5년씩 20년씩 심지어 싸워야 되는 건지 퇴직하기 직전까지 싸워야 하는지, 하루 전에 사측과 합의 같지도 않은 합의를 하면서 떠나야 되는지 그다음에 전국적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위 사업장 투쟁 고립을 면치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90년대중반까지 민주노총같은 내셔널 센터가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130만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노동자들은 각개 약진, 아니 각개 약진도 아니죠, 각자도생이 아니라 각자의 싸움에 허덕이면서 전체적인 싸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대에 관한 이야기, 연대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연대는 과연 자족적인 건 아닌지, 주관적이지 않은지, 상호적인지 사회적인지, 그리고 연대는 과연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연대는 투쟁과 결합해서 투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구성해서 주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적인 힘으로 갈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파업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사회적인' 이라고 생각하거든요.이 모든 것들.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우리는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놓고 생각들을 하면서 각각의 쟁점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운동의 쟁점으로 잡은 게 노학 연대 혹은 노동 청년 연대, 그다음 당사자주의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비폭력주의 혹은 노동 투쟁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가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1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종합 토론으로 이게 본론이고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주제인데, 바로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가지고 종합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부: 운동의 쟁점 4가지 토론마당

권영숙 대표: 34:00

이제 1부 주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제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운동의 쟁점들, 주로 최근에 새로운 연대자들의 합류로 다시 부상하는 주제들이기도 하다. 각각의 투쟁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하고 또 잠복하기도 하는 주제들, 쟁점들이 있죠.

연대의 문제의식으로 보면 이들 쟁점들은 특히나 투쟁과 연대의 결합 그리고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즉 우리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하는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견을 한순간에 해소하기보다는 이 쟁점들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 니가 옳다가 아니라 그 쟁점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 차이가 운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통점과 공동의 기반을 찾아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토론을 하십시오.

태도를 갖추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쟁점 토론이 예민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체로 공론화되지 않고 이야기를 안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는데 이야기하는 방식을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예민한 토론도 하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 그게 운동의 가장 건강한 방식이죠. 예전에는 아주 거창하게 사상투쟁, 이렇게도 표현을 했답니다. 사상투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쟁점 토론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투쟁과 연대의 경험을 우리 공동의 경험으로 만들고 축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투쟁에 대한 각각의 자세와 입장들을 서로 토론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투쟁을 승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1부 토론을 하고 2부로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1부에서 우리가 튼튼한 생각을 했다면 2부 종합 토론이 좀 더 근사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를 잘하자 이 생각입니다.

## 1주제: 노동청년연대 (노학연대)

권영숙 대표: 36:52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노동청년연대, 혹은 노학연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학 연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전태일이 죽으면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다”며 “이라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초가 돼서 80년대 변혁운동, 변혁 지향적인 학생 운동 중심으로 노학연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80년대 전반기에 노학연대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노학연대에 대한 여러 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남태령의 농민 시위에 결합하던 이들, 거제도 대우조선의 거통고 노조에 갔던 이들, 전교조 교사 지혜복의 요청에 답하여 나선 이들, 그리고 여기 세종호텔 앞에서 같이 하는 연대자들이 없었다면 세종호텔 투쟁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어젯밤 A학교 공대위가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연행되고 부상당하면서도 그 밤에 다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노학연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친구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노동청년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잘 이해가 된다면 당사자주의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언 기초 발언으로 두 분 신청했는데 김동성 동지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성 38:41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헌청지회 조합원이고 사파기금 노동위원을 맡고 있는 김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골 거제에 산다는 이유로 고진수동지가 고공농성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멀리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순서를 아마 배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노학연대, 노동청년연대에는 아마 앞에 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 24년 12.3 계엄 이후 혜성처럼 광장에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들었던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결국 탄핵 국면 그리고 이후 이어진 광장 투쟁을 주도해 나갔고 남태령 투쟁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농민들 뿐만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빠르게 결합해 들어갑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 거제에 있었습니다만 거통고조선헌청지회의 조합원들 그리고 대우조선 현재

한화오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태령 동지들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이죠.

또한 고진수 동지 세종호텔 해고자 동지들 또한 이 동지들의 큰 힘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결행하게 된 것도 판단의 근거에는 이 동지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동지들은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또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광장으로 나왔을까 그리고 계엄 이후 투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고 놀라웠는데요. 그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불법적이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거의 동시에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것은 그 당시에 또는 지금까지 어떤 동일한 문제의식, 동일한 사고 또는 동일한 간접 경험 등이 축적된 결과 아니겠는가 그 뭐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식들은 공통적으로 했을 것 같고 나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취직 문제에서부터 결혼 이후 육아 그리고 주택의 문제 등등 내 삶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을 다들 직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사회에 대한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불안감 이런 문제의식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서 행동으로 촉발시킨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 소위 20, 30대 청년들은 행동을 해오면서 아마 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사회의 어떤 격변기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출했고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보여줬고 또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해서 들여다보고 함께 연대했고 그러면 과연 이제 이후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아마 그 몇몇 동지들이 계신데요. 동지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후 기회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권선생님이 자주 이 시대의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변혁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변혁의 주체는 당연히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지들이 1년여 동안 경험했다시피 노동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자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의 현재 노동자 운동이 변혁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재 노동조합 운동의 관행, 관성에 물들지 않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계신 동지들이 저는 어떤 그 변혁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습니다. 그렇게 현실 인식을 깊게 가져서 이후 노동자 운동에 이 시대 변혁 운동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구요.

함께 투쟁해서 고진수 동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해고 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이 투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것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리해고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권영숙 대표: 45:26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채운 동지 어디 계시나요?  
손 번쩍 드시고 나와 주십시오.

**채운 45:53**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허리를 좀 다쳐서 교육청에 갔다가 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노학연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운동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는 투쟁이라고는 한진중공업과 홈에버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탄핵 광장에 나오고 나서부터 점점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수많은 전태일들의 대학생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대학생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쉽게 불합리한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 건 바꿀 힘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사회에 계속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 미래보다는 당장에 돈이 더 급하기 때문에, 당장의 삶에 더 직면한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현실에 쉽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탄핵 투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탄핵 투쟁 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많았지만 그때는 사람이 적었고 확실히 계엄 이후로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쵸? 이게 계엄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범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바꿀 수 있으니까 나왔고 그래서 바꿀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 현장에 연대하고 투쟁하는 청년이 되면서 바꿀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이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학생인 나 그리고 노동자인 나 그리고 활동가인 나 이렇게 세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양자택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노동조합을 하면 시위꾼이 된다거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노조 혐오가 아직까지 많이 심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사파기금 토론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종이배를 접는 시간”이라는 한진중공업 르포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510일차라는 홈에버 투쟁 르포를 읽어봤습니다.

두 투쟁 다 완전하게 이기는 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범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회사가 입장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종호텔 경우도, 세종대학도 많은 사람들이 꿈의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슬프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권영숙 대표 50:59**

잘 들었습니다. 약간 두 분의 공통적인 지점은 생각해 보면 노동청년연대라는 화두를 냈더니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체를 만들고 힘을 만들어 나갈까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종합 토론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년연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깊게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채운 동지가 말한 것 중에서, 노동청년이라는 존재조건은 뭐냐라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청년은 노동자이자 청년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혹은 될 청년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과 청년의 관계로서 노동청년연대를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청년은 결국에 노동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니죠 금수저들도 있고 청년도 계급적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모든 청년들이 다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또 똑같은 노동자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30대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기에 노동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노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인생의 국면에서 노동자 투쟁을 만났다는 게 가지는 의미가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나에게 노동자가 된다는 게 뭘까라는 준비를,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보면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우 괴로운 인생의 고를 하나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토론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도 좋고요. 손 번쩍 하시면 나와서 발언하셔도 좋고 발언은 3분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누가 발언하실까요? 아 김영훈 동지는 나중에도 발언해야 되지만 그러나 발언하십시오.

#### 김영훈 54:0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왔고요.

지금 과거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와 최근에 이제 김충현 노동자 투쟁으로 지금 함께 연대해서 싸우고 있는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장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세종호텔 투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어딜 가나 우리 투쟁이 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여기 주명건이라는 재벌 일가와 저희는 한전 KPS라는 거대 공기업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건 일단 한전 KPS에도 김충현이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둘 다 진짜 사장인데 진짜 사장이 뒤에서 본인들이 진짜 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한전 KPS 하청 노동자들을 겁박하거나 해고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한전 발전소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를 좀 많이 드러내서 사실 알려진 거는 이제 김충현, 김용균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 수년 사이에 또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라든지 논란을 만들어서 지금 김충현이라는 사장이 정말 참 부도덕한 사람이다. 당장 내려와야 될 사람인데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문책을 하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호텔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좀 두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힘을 끌어모아서 저 사람이 내려와야 노동자들이 살고 특히나 저희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는 조직적인 공기업으로서 저 사람이 내려와야 공기업이 좀 깨끗해지겠구나 조직 체계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숙 대표 56:52**

주제가 노동 청년연대인데요. 고 김용균은 아주 젊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인생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자로 살지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러나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한테는 항상 씩씩하게 나는 잘하고 있노라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애쓰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김충현이라는 분은 나이가 좀 더 많은 이인데 그 역시 인생의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노동자로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누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김용균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번 봅시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주세요라고 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거든요.

노동청년연대로 이야기를 좀 좁혀서 구체화한다면 노동 청년들이 결국에는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라면 청년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이들에게 연대라는 게 얼마나 절실했을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왜 80년대 유산 같은 노학연대가 지금 부상하고 있고 이렇게 어디서 갑툭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 **소수윗 1:00:28**

저는 소수윗의 호수라고 하고요. 승희가 발언을 많이 힘들어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있는 동지들이 본인들을 노학연대로 정체화하고 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는 명칭도 연대 동지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노학연대와는 조금 다른 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세종호텔 얘기를 해보면 20년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나진 않는데 서울 쿼어 문화 축제가 여기로 행진 코스를 하는데 그때 동지들이 여기 세종 호텔을 지나가는데, 무지개로 색칠한 피켓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세종호텔 투쟁하는 동지들이 그걸 들고 계셨었어요. 행진하는 무리 중에 한 분 저의 친구인 그분이 나름대로 용기 내서 쿼어 축제 행진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여기 세종호텔 해고 복직투쟁하는 곳이다 큰소리로 외치면서 같이 환호하고 투쟁

외치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장들이 있고 그래서 연대 동지들 중에서 귀어 문화 축제 행진하면서 여길 지나가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같이 환대하고 열려 있는 이런 노조 동지들 덕분에 이제 용기 내서 현장에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탄핵 시기 전부터 투쟁을 하던 사람인데 여러 이유로 그런 사람이지만 탄핵 시기 이후에 이런 연대 동지들의 흐름이 너무 흥미롭고 즐겁고 이 동지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서 더 소수였으로서 이런 동지들이 있는 현장에 더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노래하지 않는 날에도 그냥 현장에 와서 농성장도 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통고도 마찬가지로 그때 신년 투쟁에 남태령 동지들이 궁금하다는 말에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아무튼 제 말의 요지는 이 현장이 되게 열려 있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되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열린 문화로 같이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현장들이 또 더 돋보인 더 이렇게 많은 연대 동지들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되게 큰 환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물론 연대자들이 가서 그냥 환영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되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권영숙 대표 1:04:20**

연대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 투쟁에 서먹한데 처음 접하기도 하지만 환대를 받는 경험이 중요하고 그 경험이 시작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투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립된 투쟁 아까 제가 말했던 민주노총이 있으면 뭐 하나 나타나지 않는데 하는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실 시작은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파기금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전국을 다 다녔는데 싸움을 이제 시작한 곳들도 찾아내서 가고 그랬더니 매우 놀라더라고요. 왜 왔지 여기에라고요.

권육자 분회장도 사파기금을 매우 고마워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그때 꼭 집어서 알아냈느냐 그 이야기를 이후에도 제가 1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우연은 아니죠.

시작은 그렇게 우연성으로 시작을 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좀 더 든든하게 체계적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고민할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 **2주제: 당사자주의**

권영숙 대표:

이제 노학연대 노동청년연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연결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논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당사자주의, 사실은 있지 않았던 개념,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 단어죠.

한다미로 투쟁은 투쟁이고 연대는 연대인 건데 연대라는 게 생기면서 사회적 연대, 사회적 파업 연대, 희망버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당사자란 말이 오히려 부각이 됐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도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있죠.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투쟁들과 그들 존재가 부각되면서 실제의 당사자 아닌 자들이 문제를 사건을 농단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당사자가 중요하게 발견된 측면도 있죠.

그런 긍정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주의'가 붙는 순간 괴물이 돼버리는 면도 있죠. 제가 괴물이라 하니까 놀랄 수도 있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지혜복동지가 사실은 여기 오셔서 발언도 하기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년 매체인 토끼풀 이음, 그 편집장이 현 교육감 북토크에 와서 축사하는 문제 이런 걸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결국 우리의 당사자성에 대한 예민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하면서 "당사자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즉 우리는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연대는 그래서 자신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나가는 거다. 연대한다라는 것에서 그어지는 선을 우리가 넘어서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로 여러 생각의 가지들을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의 발언 충동을 더 부추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구글로 기초 발언을 신청한 박지수 동지 일단 발언 부탁드립니다. 발언 메모도 해 왔네요. "부르주아 사회가 쌓아놓은 당사자주의라는 허상"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 **박지수 1:08:15**

안녕하세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책클럽에 참여하고 있고 따로 지금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핫팩을 받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 핫팩이 지금 추운데 저한테는 되게 사용 가치가 높은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작년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어요. 지금 문제는 이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에 봤을 때 이 노동의 가치를 숨기고 숨겨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업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농성을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숨겨진 노동의 가치를 잠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농성이라든지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 노동의 가치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줌으로써 이게 계속 선순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일반 노동자 민중 대중이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상품이 우리가 이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공부한 게 통번역이에요. 영어 통번역인데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도 사회랑 개인이랑 자유,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세 단어가 일본에서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사회나 개인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정착중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사회'라는 말, '개인'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이 처음에는 당연히 혼동이 있었고 근데 일단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랑 개인이라는 두 단어가 너무 대립함으로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당사자주의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주의를 짧게 말하면 제3자 개인 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3자를 설정하는 순간 당사자를 설정하는 순간 결국에는 사회라는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계속 더 이상 나뉘질 수밖에 없는 원자화가 된 개인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영숙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라는 그 관계를 잊지 않고 우리가 더 기존에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랑 개인을 대립함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그 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계속 우리가 번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와 개인과 자유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사자주의라는 말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당사자주의에서는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당사자주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원자화된 개인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피하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사자주의를 극복하고 당사자가 더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 생각에 어떤 콜로세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굉장히 숭고해 보이는 콜로세움 안에서 이 당사자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룰을 자본주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콜로세움의 벽돌 하나하나를 노동자 노동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숙 대표 1:13:08**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파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회적 존재인 노동자들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집합 행위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회 대 개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당사자주의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 그 당사자는 결국 개인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겠죠. 덧붙이자면 사실은 당사자주의에서는 연대의 위치가 뭐냐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승하 동지가 원래는 비폭력주의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당사자주의와 비폭력까지 묶어도 되고 당사자주의가 요즘에 매우 논쟁적인 운동권 안에서의 중요한 쟁점이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투쟁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네 번째 주제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라는 걸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승하 1:15:1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택배 노조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정치사람과 결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승하라고 합니다.

비폭력은 제가 경찰이랑 많이 싸워서 그것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와가지고 못할 것 같고 저는

장애인 운동을 좀 오래 한 몇 년 했는데 노동야학에 처음 들어가시면 때문에 걸려 있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우러 오셨다면 당신은 헛걸음 한 거다. 그러나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맞닿아 있다면 그래 함께 일해 봅시다” 라고 하는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11월달인가 12월 달에 노조법 2.3조 개정 공동 행동에 남재용 목사님이 뭐 단식을 한 20여일 들어가시고 했을 때 현재 위원장이랑 국회에서 만날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연대자에 대해서 “그냥 뭐 이맘때면 매번 건강 단식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게 들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연대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런 위원장의 발언을 목도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어색해질 만큼 그런 판단들이 좀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가장 본인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에 집중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고 특히 영국에서 벌어진 이 장애인 동지들 운동의 당사자성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이 메신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만 몰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애인만이 장애인 운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노동자만이 노동 운동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치부해 버리면 이 연대자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대 시민과 광장을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진수동지가 올라가셨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 다 같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고진수다라고 우리는 외쳤고 내가 고진수로 같이 함께 투쟁해 왔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성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당사자에 입각해서 좀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저도 장애를 입지 않았는데 장애인운동을 한 12년 하면서 그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해왔고 지금 제가 택배 노동자는 아니지만 택배 노조에서도 당사자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모인 동지들께서도 해고 노동자와 같은 당사자성을 갖고 해고 노동자들의 해방에 많이 깊이 공감하고 그 해방과 나의 해방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이시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단단하게 뭉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20일이 다가오는데 4월 11일, 민주노총에서 장애인 운동과 지역 운동에 교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장애인 운동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그 지역 420 장애인 공투단을 꾸려서 지역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의제 연대체로만 좀 설정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서 운동으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장애학의 시선 저자 김도현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숙 대표 1:20:15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투쟁에서 당사자주의라는 걸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연대가 무엇인가라는 게 표류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의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 가는 투쟁을 통해서 운동을 만들어 가는 우리를 굳혀내는 과정들이 좀 계속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투쟁 당사자가 선을 긋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연대를 대상화한달까 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들 많은 경험들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파 기금이 올해가 15년째예요. 2011년에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토로했었어요.

노동조합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들에 급급한 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어떤 연대든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연대에 대해서 어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서로에게 벽을 친다라는 거를 그리고 연대자들도 자신의 연대가 그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그 정도 이야기로 여기 이야기는 좀 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주제: 투쟁의 방법- 비폭력주의등

#### 권영숙 대표 1:22:03

비폭력 혹은 비폭력주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투쟁방법 전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투쟁 방법으로서 비폭력주의나 비폭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노동자투쟁에서 승리란?” 주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난해 이후로 2,30대 노동 청년들 사이에도 꽤 극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팩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오르는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A공대위 집회에서 경찰 폭력이 있었고 연행사태가 있었는데, 연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좀 더 폭력적인 것을 우리도 행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구성한 것 자체가 운동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과연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의 질문은 이겁니다: 저항의 범위는 혹은 저항의 방식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은 투쟁 방법이라는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한 투쟁 방법이잖아요. 어쩌면 방법으로서는  
비폭력이 전제가 되는 게 과연 기준으로서 맞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여

#### **임영희 1:24:42**

비폭력주의는 사실 허상이고 자본가들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자본가들은 항상 폭력적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대화하 하자 그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당연히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폭력  
비폭력을 나눌 건 아니고요.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들도  
시위 집회 관리를 하러 나올 때 본인들도 이제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마  
행동도 좀 자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찰들이 이제 폭력 행위를 하는 거를 체증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걸 처벌받았다고 들은  
적은 저도 없거든요.

그리고 자본가들에게도 뭔가 힘을 보여주려면 생산 수단 같은 거를 좀 파괴를 해야지 좀 뭔가  
대화를 해보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권영숙 대표 1:26:48**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면 이 스피치에 대해서 좀 보충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분 더 발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채윤 1:27:57**

안녕하세요.또 발언을 하게 됐네요. 제가 어제 교육청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까 처음에  
발언할 때 얘기했던 허리 다친 게 교육청에서 다친 거거든요. 어쩌다 다쳤냐면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연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러세요 했더니 자빠져서 그대로  
응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밀쳐가지고 바로 응급차를 타고 갔는데 응급차 안에 누워  
있었더니 경찰들이 구급차 쪽으로 와서 손이 까졌다고 밴드를 붙여 달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시위를 나오기 전까지 준법  
정신이 되게 투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명만 여기면 불법이지만 다  
같이 여기면 투쟁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이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가 법을 굳이  
지켜야 될까요?

법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인데 저들이 먼저 그걸  
어겨놓고서는 우리에게 그 합의를 지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 혐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라도 이 약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나네요.

사람을 막 그렇게 집어 던지면서 우리 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제 말을 정리하자면 법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 의미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권영숙 대표 1:31:06**

고맙습니다. 아주 시원한 말이네요. 손 들고 발언 신청하신 분, 이름을 몰라 이름을 밝혀 주시면.

**류소연 1:31:24**

저는 연대시민 류소연이라고 하고요.

비폭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듣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듣기만 하러 가서 자꾸 말을 하게 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비폭력 투쟁, 비폭력 평화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냥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비폭력주의가 준법 정신이랑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되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짚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비폭력 평화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투쟁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입장으로 또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폭력 투쟁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준법 정신과 비폭력주의가 분리되어서 우리의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영숙 대표 1:33:02**

만약에 준법 정신과 비폭력주의 목소리를 빼더라도 만약에 그게 서로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류소연 1:33:12**

저의 신념은 일단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때 저도 모르겠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의 신념은 비폭력 투쟁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숙 대표 1:33:28**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필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엉뚱한 방식으로 진행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20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비폭력을 둘러싸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평화주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힘을 믿고 그것으로 체제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주장이지 그 자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한 가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견으로 인정하고 이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만을 확인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앞으로 좀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더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을 삼는 걸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 4주제: 노동자투쟁에서 승리란?

##### 권영숙 대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주제,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란?’ 이야기를 할 텐데 앞에  
 이야기를 모아서 이 이야기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투쟁에서 승리란 뭐냐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승리라고  
 보는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전략적인 승리, 전술적 실패 혹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승리과 패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승리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뭔지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주 적고 희소하지만 귀중한 승리의 경험들도 약간씩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우 사랑하는 우리 권옥자 청주 요양병원 분회장께, 분회장 동지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옥자 1:36:05

주제에 벗어나도 곳곳하게 갈 수 있는 게 투쟁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건지  
모르고, 내가 투쟁해 오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노동자의 길로 갔던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서울 올 때는 노동조합조끼 이거 안 입어요. 근데 오늘 따라 겹에 다 입었죠 이 조끼 하나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860일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 아, 오늘 이걸 보면서,  
고진수 우리 시청 앞 그 마당에 그 야경 가로등 속에 사파 우리 회원들이 그때는 연대자들도  
많으셨지만 투쟁하는 아사히, 동양시멘트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고진수 동지

멋지게 마이크 잡고 일어섰던 그게 지금 이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때 그 모습이 떠올려지네요. 바로 그런 게 저를 860일 싸울 수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연치 않게 투쟁을 세 번을 하게 됐어요. 2000년도부터 했거든요. 첫 번째 2000년도 투쟁은 한동훈의 아버지 AMK, 한동훈이 충북의 아들입니다 하고 떠드는 대목에서 나오는 AMK 청주 공장 문 닫는 과정에서 투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기만 했었고 조합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다 와해시켜가지고 간부들은 싹 갔는데 -갔는지도 몰랐어 조합원들은. 문을 닫고 자본 철수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았거든.

202명의 AMK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싸움이 시작될 때 전교조, LG화학, 정식품, 금속 할 것 없이 모든 동지들이 다 왔는데 걸개 그림은 다 학생들,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갖다 걸어주고 그야말로 주위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그 연대 덕분에 860일 동안 문 닫은 공장을 폐업 건물을 차지해 가지고 저는 투쟁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대의원 하라길래 탈퇴한다 이랬던 사람인데 조직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6개월을 싸워가지고 진짜 다 요구하는 대로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치열해 가지고 내가 그때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무대보고 나 저기 가서 떠들게 세워 달라, 그때 처음 비정규직 투쟁이라고 그러면서 시작하던데, 그러니까 그 무대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막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침 삼미특수강 동지들이 우리한테 와서 밥을 먹고 쉬어갔던 게 인연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저를 세워줬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럴 정도로 아주 절박하니까요. 저는 절박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내로 바로 이겼습니다. 딱 하나 이유는 모두가 같이 했기 때문에..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2000년도 싸움 엄청나게 이겼거든요.

이후 이제는 싸움도 힘들고 해서, 요양보호사를 하면 그거는 아줌마들이 하는 거니까 싸우지 않겠지 했더니만 갔더니 또 해고시켜 또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역시 연대의 힘이었고, 우리 사파기금이 개입한 마지막 싸움도 노동조합이 싸워 이기고 들어갔더니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천천히 들어가면서 직종이 되는 건 있는데 한날한시에 100명이 다 가입을 해가지고..노동조합 만들었더니 확 문 닫아 때려 부숩버렸어. 그 폐업으로 860일을 싸웠어요. 그때 싸울 때 외부에서 사파기금 우리 대표님도 오시고 고진수동지도 왔지만 우리 싸움 속에는 어떤 단위가 없었어. 노동조합으로 싸우지만 단위가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단체도 함께하고 그래서 지금도 엄청 친해요.

사회단체도 있지만 금속이든 뭐든 직종이 달라도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거고 함께해서 연대를 했고 또 청주를 벗어나 전국에서 동지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파 연대자, 저는 지금 사파 연대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연대자가 아니에요. 저는 연대를 받은 자 그래서 같이 끌고 가게 된 그때 나를 끌고 가서 우리의 860일 투쟁을 승리해서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가서 호강하느냐 안 해요. 현장 투쟁이 더 힘듭니다.

저 지금 오늘 오후 10시 반 차타서 12시 반에 내려 집에 가면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돼요. 다시 6명의 환자와 또 목욕시키면서 실갱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현장에서 무슨 투쟁하고 이기면 꽃밭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뭐가 필요하냐 하면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싸워주었을 때 내가 이겨 들어갔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함께하는 내 편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게 승리라고 봐요.

그래서 고진수는 이미 승리 했잖아요. 끝까지 갈 거잖아 멈추지 않을 거잖아. 청춘을 다 바치더라도 절대 즐기면 이긴다. 이미 그래서 고진수 세종호텔은 승리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고.

우리 감정 노동자들을 그냥 해고시키면 저 아줌마들이 뭘 하겠어 했는데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는 그 단계가 이겼더라고요.

이겨서 승리해서 복귀했어. 이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일 뿐이고 이미 우리가 860일 천막 농성을 하면서 투쟁해서 싸우던 그것이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보람 있었어. 그게 가장 신났던 거예요. 현장은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고진수 : 1:45:08**

투쟁!

**권영숙 대표 1:45:10**

권옥자 분회장 파이팅.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만들고 사파기금 500만원 이상 지원한 게 지금 91번째거든요.

그중에서 청주노인병원 연대를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투쟁입니다.

맨날 이야기를 하죠. 사파기금이 지원한 곳은 꼭 이기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기지 않은 것들이 많죠. 더 많죠. 그러나 이긴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잘 귀담아들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들 특히나 열심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동지의 발언을 듣고 나서 약간의 공연 타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좀 추워 보입니다. 핫팩 좀 꺼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박수정 1:46:15**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저는 지금 간호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노동자 투쟁에서의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발언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제야 막 노동조합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승리를 제가 논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제가 이번 광장에서 내란 이후로 만난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투쟁에서 느꼈던 거, 제 짧은 생각으로 보면

일단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그 사업장에서 말하는 그냥 임금 단협 투쟁에서의 승리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종호텔의 조합원 동지들이 왜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 투쟁에 연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리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 노동자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정리해고에 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호텔 동지들이 투쟁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정리해고들이 좀 저지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의 투쟁의 승리가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 한발 지킬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연대를 하고 저는 그게 노동 투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일 사업장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 사업장들의 투쟁의 승리를 보고 우리도 싸울 수 있겠다. 노동자들이 싸우고 하면은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법 판결로 많이 하나까 저는 이 사례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호텔 동지들이 이번에 정리해고 투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복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정리해고 투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라고..어쨌든 이런 사업장, 이런 노동자의 투쟁들이 앞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발디딜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노동자 투쟁의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영숙 대표 1:50:17

사파기금은 권옥자 분회장 동지와 엄청 오래된 인연이었죠. 항상 사파기금의 연대를 잊지 않고 계시고요. 사실 연대를 잊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대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대가 커져 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단체 이름이 아니라 연대자들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 거고요. 그 점에서 청주노인요양병원 노조 분회는 가장 모범적인 투쟁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분회장동지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절박함"이었어요. 절박해서, 절박하면 못할 일이 없고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자세예요. 저는 저보다 더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정 동지 말처럼 승리의 사례를 만드는 것, 자본 앞에 지지 않고 싸우는 그 사례를 만드는 게 바로 진짜 승리의 의미가 아닌가 봅니다.

## 2부 종합토론 -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테이프2)

#### 임정득 공연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노동을 자꾸만 폄하를 하고 지워지는 노동, 계속 숨기려고 하는 노동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인공지능이다 AI다 굉장히 저들이 엄청난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건 이렇게 다들 자기 자리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피로 먹고 자라나는 게 지금 이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곡은 소금꽃 나무입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면 땀이 꽃 속에 스며들어서 하얗게 피어나요. 그걸 소금꽃 같다. 그걸 피우는 여러분들이 소금꽃 나무 같더라고 쓰여 있는 글을 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소금꽃 나무> 들려드리겠습니다.

- 첫번째곡 <소금꽃 나무>

다음에 부를 곡은 <가능의 미래>인데 제가 작년에 음반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참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정말로 이 자본주의 세상 말고 진짜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내딛을 수 있는 용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걸 내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런데 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고민들이 사실 너무 배부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또 저희는 광장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장에서 나처럼 다른 무언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현장에 투쟁하는 동지들 보면서 그런 힘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노래인데요. 뜨거움이 너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이 낡아버린 이 썩어 빠진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나를 기다려라는 가사입니다. 가능의 미래 한번 힘차게 추우니까요. 여러분들 방방 춤추셔도 괜찮아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곡 <가능의 미래>

**고진수 09:4**

2부 빠르게 진행, 사회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권영숙 대표 10:22**

생각보다 초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봄이 온다는 데 취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봄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대미를 장식할 종합 토론 시간이 남았는데요.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 이야기는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으로서는 336일 고공 농성을 하고 내려와 20일 동안의 로비 투쟁을 하면서 다시 또 끌려가기도 했던, 그러나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싸워야 되는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고진수 동지의 기초 발언을 듣죠. 제가 “15년의 투쟁, 5년의 정리하고 투쟁” 이렇게 써놨는데 제 마음대로 붙인 거고요 고진수 동지께서 이 질문에 대한 기초 발언으로 허심탄회하게 함께 이야기할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면 다른 몇 분을 모시고 다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수 11:46**

15년의 투쟁, 제가 2001년도 세종호텔 입사하고 2012년도 파업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파업 이후부터가 저의 투쟁, 노동 운동을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종호텔에 있으면서 파업 이후 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실 첫 파업도 연대를 통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반쯤의 승리이지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소수 노조였고 우리 힘으로는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자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내지 못했을 때, 다양한 투쟁 사업장들 노동자들이 세종호텔 로비를 가득 메웠을 때,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뭔가 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겠다라는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나 당시 소중한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소수였지만 현장에서 온갖 탄압들, 전환배치, 임금삭감, 별별 모욕과 이런 것들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더 목소리 내면서 싸울 수 있는 그게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것 느껴졌었습니다. 정리하고 이후로 싸우는 과정에서도 지금 저들은 법적으로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법이라는 게 너무나 자본에게만 유리하게끔 해석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명건은 모든 것을 여전히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쥐고 자기의 이득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어용노조를 이용해 호텔을 담보로 많은 대출도 했고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어서 엄청난 돈들이 지금 세종호텔 수익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완전히 줄여냈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으로 거의 움직이는데 호텔 객실 매출은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59년째 영업중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땅도 일부 우리가 해고당할 당시 조금만 팔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건성건성 팔겠다고 내놓기만 했지 끝내 안 팔고 있으며, 노동자 해고하고 거의 2년만에 그 땅 일부만 팔았는데 5백 몇십억에 팔았습니다. 이중 부채 갚는데 한 200억 쓰고 330억을 또 쥐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영업이익만 42억, 25년도는 곧 나오겠지만 아마 그 1.5배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억 가까이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돈은 원래 이익이 나면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는 호텔 개보수하는 데 뒀다가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학교로 학생들한테 줘야 됩니다. 세종호텔은 55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명건은 그 돈들로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사면서 편법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돈 잔치를 또 했을 겁니다.

주명건이라는 자본 때문에 학교로 제대로 그 돈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학교에 가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주명건이 선불리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또 주명건의 2세,3세들이 이 세종호텔을 매개로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소수이고 어용노조가 더 크긴 하지만, 주명건은 저희 해고할 때 호텔 문 사실상 닫아도 되니까 정리하고 끝까지 관찰시켜라 이게 저희들도 우회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호텔 등급이 3개로 떨어져 있지만 해고자 복직시키고 세종호텔의 오랜 명성을 이용한다면 객실 단가를 비롯해서 훨씬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명건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본가의 이런 헛된 야심 고집입니다. 근데 문제는 호텔이 개인 것도 아닌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시스템과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학에 돈을 지원하면서 사학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몇 번을 발견하고 그놈을 해임시키지만 재판을 통해서 다시 뒤에서 좀비처럼 돌아와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곳 구성원들은 아, 주명건은 워낙 힘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내부에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학교는 아예 완전히 눌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희들도 힘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그 주명건이라는 자본가에 대해서 계속 알려내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연대, 그리고 다른 사업장들과의 연대도 하고 또 많은 연대를 받으면서 주체화 돼 가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좀 더 성장한다라는 느낌들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재정적인 문제, 가정사등 이런 부분들은 힘들지 않을 수는 없죠. 벌써 4년이 넘게 최저임금도 안 되게 다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기고 빠르게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매번 저희들도 같이 또 느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워 갈 수 있는 것, 또 그 연대들이 진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화요일 기도회도 2년이 넘도록 빠짐없이 해 주시고 목요일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장에서 만났던 많은 동지들의 사력을 다하는 투쟁들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 싸움들은 포기할 수 없구나, 힘 닿는 데까지 해야되고 이 연대가 이어지는 한 우리는 힘내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 대신 나도 힘드니까 그럼에도 빠르게 한번에 점은 꼭 찍고 싶다 이 마음만은 뭐 항상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 주명건에 대한 타격을 반드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상처 입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자본가에게 분명히 우리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투쟁하는 새로운 우리 동지들이 그런 싸움들에서 서로 얻는 에너지와 신뢰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싸움들에 대한 승리의 의미들은 다양하게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뭔가 그런 점을 한번 찍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싸울 수는 없고 이 세종호텔 투쟁은 반드시 뭔가 한 번쯤은 찍고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걸 이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로 함께 하는 동지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리의 의미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발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대표 20:50**

최현국 목사 동지 발언해 주십시오. 세종호텔 투쟁에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하셨지요.

#### **최현국 21:40**

세종호텔 투쟁 지난한 과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운동의 쟁점 그리고 투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목요문화제 속에서 길거리 토론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고공투쟁까지 우리가 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투쟁이 어떤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찾지 못하는 그런 과정속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여러 토론 과정, 발언 과정 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질긴 놈이 이긴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또 아까 노학연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 연대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좀 더 조직적인 연대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물론 서울본부와 서비스 연맹이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전선의 맨 앞에 서서 이렇게 함께해 주기보다 여전히 당사자 주최들이 결국 실제적으로 이 투쟁을 이어가기에 역부족인 그런 상황속에서 이만한 시간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90%의 우리 승리의 그 과정을 좀 담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 권샘님이 좀 정리도 해주셔가지고 귀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고 어쨌든 이 투쟁이었던 아젠다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사람들 설득을, 특히 정리하고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세상 앞에 확실하게 세종호텔 이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고라는 제도자체는 노동자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계에서 다시금 완전히 없애야 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조직적으로 우리가 더 세종호텔의 투쟁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어야 되겠다 싶고, 물론 운동의 투쟁은 당사자 주체의 그 투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같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주변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알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투쟁의 어떤 꼭지점이 세워질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좀 다듬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투쟁을 모아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대표 27:59**

아주 붓물 터지듯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중요한 이야기도 몇 가지 하신 것 같아요. 김진희 동지 발언을 들어볼 차례이긴 합니다.

#### **김진희 28:49**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희라고 하고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라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투쟁은 힘있게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길게 계속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과정 안에서 연대 동지들 우리 청년동지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연대하면서 그런 결실들도 조금씩 계속 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승리냐? 안성에 두원정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작년 12월에 10년에 걸친 끌어왔던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선고가 났고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파산 관재인과 법원을 설득을 해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금 주인이 없는 거죠. 16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이 조합원이

나가지 않고 지금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전에 잘 돌아갔을 때 특근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언제 문을 닫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포기하고 공장에 남아서 돌리고 있는 상황을 저희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왜 이 공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미래도 알 수 없는 이 공장을 남아서 돌리고 있는가 사실은 물음표이고 잘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일자리 찾아서 가는 게 개인을 위해서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일인데, 지금 조합원 노동자들이 회장도 사장도 도망간 그 회사를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서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 노동자들이 선택한 길을 우리는 계속 옆에서 같이 힘을 주면서 지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종호텔 투쟁도 사실 앞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했던 민주노총이든 상급 단체 서비스 연맹이든 연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도 맞고 연대하시는 동지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세종호텔도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국은 이 연대와 또 실제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 잘 오지를 못하고 와도 세종호텔에 잘 들릴 수가 없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상 마음이 무거운데 가끔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동지들과 좋은 시간을 오늘 갖게 돼서 다행이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서파기금에 감사합니다.

#### **권대표 33:41**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영훈 동지가 한전 KPS 상경투쟁하여 여러 노동자 투쟁들을 보면서 생각하신 것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김영훈 34:31**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청와대에서 농성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연대해 주신 동지들이 많았지만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밥 사주신 분들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오셔가지고 직접 밥도 먹여주시고 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청와대 농성을 접고서 주로 활동은, 아직 조직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길이 있었고 만나다 보면 분명히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싸우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랐던 그리고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아예 상황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뜻깊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특히나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한전 KPS가 우리를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되게 두렵다 그리고 싸우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그분들을 만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한전

KPS가 힘세고 이렇게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다, 타협해 보라. 근데 타협하는 순간 그 삶이 나아지느냐 당신의 삶이 과연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오히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안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항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들이 만들어졌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아무리 이 한전 KPS가 다 지역적으로 쪼개져 놓고 분할 통치를 한다 한들 노동자들이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정보를 교류하고 또 사람이 모임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모임으로써 어떤 집단지성을 생성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한전 KPS에서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규합하는 데 좀 많은 힘을 쓰고 있고 저희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호텔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끊임없이 알리고 사회적으로 좀 지탄해야 될 상대를 명확히 하고 또 해나가는 게 노동자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더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얘기도 해 주셨는데 물론 법도 필요하지만 법이 온전히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냥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법보다 투쟁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법이 완전하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거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법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억울한 일들, 또 분노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세종호텔이든 한전 KPS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홀가분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끝내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대표 38:48**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같이 참여했는데 날씨가 꽤나 추웠지만 잘 견디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하기를 이걸을 해소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의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리고 공통의 기반을 더 확보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소박한 목표였는데 소박하기 때문에 달성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라는 이야기에 어떤 시작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투쟁이 한 투쟁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투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사회적인 파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인 파업을 통해서 너의 싸움만이 아니라, 너의 싸움에 단지 내가 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과연 주체로 형성되어갈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누가 되어야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새로운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다고 봅니다.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임정득 가수의 노래제목처럼 '가능성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선명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들 지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더 나갈 수 있도록 좀더 한 발자국씩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고진수 40:52**

오늘 저녁 날씨 좀 쌀쌀한데 거리에서는 잘 해보지 않은 방식,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